

계급적 여성 운동을 향하여

구공탄

창간호

커뮤니티 주소 : <http://go.jinbo.net/gugong> | e-mail : gugongtan@jinbo.net |

2006.5.29

철도 자본의 착취와 철도 노조의 관료주의를 뛰어넘어 KTX 투쟁 승리하자!

0. 무엇이 그녀들을 투쟁으로 내몰았는가?

객차 점검, 영접 및 환송 인사, 특실 깨우미/음료 서비스, 방송기기 및 영상 수신장치 점검, 열차 안 방송, 차내 편의시설 이용 안내, 단독 탑승 어린이 및 노약자 인계, 장애인 승하차 도우미, 정차역 및 종착역 승강문 개폐 및 발판 확인, 유실물 인계, 환자 구호, 순회 서비스, 의심물품 점검! 철도 공사는 KTX 개통 후 2년 동안 단 2명의 여성 승무노동자¹⁾들에게, 1000명이 탑승한 18칸짜리 KTX 열차의 모든 승객 업무를 강요했다. 강제된 하이힐과 짧은 치마, 들쭉날쭉 대중없는 스케줄의 당일 통보형 업무 배치, 생리휴가를 비롯한 보전 휴가 없는 7일 근무 속에서 단 1명의 승무노동자가 일반 객실 전체에 이 많은 서비스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철도 공사에 직접 고용되어있는 철도 내 모든 노동자들, 남성 승무원들과는 달리 여성 승무 노동자들은 철도 유종(구 홍익회)에 고용되어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비정규 파견직이다. 파견직은 업무 계획과 감시, 노조 활동, 인사 등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원청이 가지고 있으나 법적 고용 형태만을 하청으로 하는 '도급' 형태의 간접 고용으로서, 이를 통해 자본가 계급은 임금 및 복지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노동자 계급 내부 분열을 강화하고 있다. 철도 자본가들은 계약 당시 '1년 후 정규직화'라는 약속을 파기하며 철도 유종은 실질적 통제권, 철도 공사는 법적 근거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였고, 노조 활동 여부로 제계약에 불이익을 주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말살하고자 하였다. KTX 여성 승무 노동자들은 어용 철도 유종 노조를 거부하고 철도 노조로 소속을 변경하고, 철도 파업의 정리 이후에도 독자적인 파업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그 와중에 철도공사는 KTX 관광 레저라는 부실 자회사 설립하여 KTX 승무원들을 더 열악한 환경 속으로 유인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투자 자본의 미약함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부실 기업이라 판정한 관광 레저의 기능은 무엇인가? 파업 복귀자를 비롯, 파업 파리를 목적으로 하는 황급한 신규 채용 노동자들을 관광 레저



로 소속시켜 파견직을 더욱 확장하는 것, 즉 관광레저는 절대적 잉여를 쥐어짜기 위한 철도 공사의 한 부서인 것이다! 복귀 순서 및 복귀자 조직 수에 따라 간부 자리를 주는 관광 레저 자본가들의 실체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는가!

관광레저 해체 및 철도 공사 직접 채용, 정규직 쟁취! '이제 이별을 이야기 할 시간이 온 것 같다' 따위의 역겨운 문구나 건방진 문자 메시지로 직위 해체를 통보하고 있는 철도 자본가들의 만행에 맞서 여성 승무 노동자들은 철도 서울지역본부 농성장 점거 투쟁과 일상적인 서울역사 집회, 파업 복귀자 승무 업무 저지 투쟁을 계속했다. 그러나 철도 자본가들은 농성장 가치분 신청을 통해 5월 3일을 끝으로 파업 대오의 농성 철수를 강제, 5월 11일 공권력을 투입하여 농성장을 침탈했다. 결국 철도 공사는 5월 15일을 기점으로 승무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고 이제 여성 승무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 투쟁으로 넘어갔다. 철도노조는 뒤늦게 합의 이행을 걸고 철도 자본의 노동자 중징계 및 KTX 공권력 투입 규탄을 걸고 재 투쟁에 들어갔다.

KTX의 경우 높은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노동자들의 의식적으로 무장된, 강도 높은 투쟁이 부재할 때 자본가들은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다. 어용 노조를 벗어 던지고, 철도 지도부들의 관료적인 투쟁 파기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독자적 파업을 구축해 낸 여성 승무 노동자들의 싸움은 세간의 주목을 집중시킬 만큼 뛰어난



것이였다. 그러나 철도 노조 내부의 관료주의를 뛰어넘지 못하고 고립을 맞은 KTX 지부 투쟁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철도 노조의 일부이며, 철도 노조를 전인해야 할 KTX 여성 노동자들의 과제는 무엇인가?

1. 투쟁의 한계를 짚고 전망을 도출하자.

철도 노조 지도부의 관료주의

철도 노조는 철도 공공성 강화, 주 5일 근무제 쟁취(인력충원과 교대 교번 근무 개선),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해고자 복직, ERP(현장 감시 체계 구축, 노동자 내부 경쟁체계 도입)을 걸고 3월 1일 총파업에 돌입, 4월 1일 협상안을 도출했다. '문구 해설에 매달리지 말고 성과는 성과로 남기자'라는 철도 지도부들의 기막힌 굴욕 협상의 내용은 한 마디로 "협의체 구축 후 논의해보자" 일 뿐이다. 공공성에 대한 환상²⁾, '처우개선'에 그치는 비정규직 문제 등 요구안에서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다. 철도 노조는 실질 임금의 감축, 근무 형태 개악, 파견근로 확장 없는, 인력 충원을 통한 주 5일 근무 쟁취는 근무 형태의 소폭 수정에 합의해주었고, 해고자의 경우 일부만을 구제하는데 그쳤다. 또한 ERP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안을 향후 회의 테이블을 통한 지속적 노사 합의로 종결짓고 KTX 여성 노동자 원청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 요구를 사실상 제외하였다. 철도 자본가들은 선 복귀 후 협상을 주장하면서 관료들을 매수했고 결국 2700명의 직위 해체와 200명의 고소 고발이라는 뒷 통수를 때렸다. 또한

1) 이마저도 본래 3인 배치였으나 2인으로 감축,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2인 배치 이후 이들의 업무를 일반 객실과 특실로 분리시켜 사실상 한 명의 승무원이 13칸 일반실 전체 업무를 떠안게 되었다.

2) 철도 노조는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와 같은 교통 약자에 대한 합인 제도 축소 반대를 투쟁 요구안으로 채택하였다. 철도 노조는 이를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 이름 붙이는데, 공사, 즉 국영 기업의 공공성 강화 요구는 국가가 이러한 기업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노동자 및 근로 대중의 이해관계에 맞게 이러한 제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갖출 수 없다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권력의 방패로 부릴지도 군대의 파견으로 분쇄되는 현실을 보며, 국가는 적대하는 양 계급의 대립을 완화시키는 중립적 역할을 자신의 임무인 양 치장하면서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더욱 안전하게 안착시키는데 기여할 뿐이다. 자본가 계급의 행정 부서인 국가는 노동자 및 근로 대중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계급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 설명 '도덕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국가에 요구한다 하더라도, 노동자 및 근로 대중, 사회적 약자의 각종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출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우리 돈 주고 우리 돈 먹기 식의 '국가 재정'이 아니라, 임금 노동, 최대 수혜자인 자본가들의 이윤이 되어야 한다. 철도의 '공공성 강화' 요구는 국가 분식에 실패한 소부주주적 요구이다. 교통 약자 합인 제도 축소 반대는 노동자 계급이 앞장서서 연대해가는 하나의 단일한 장애인 운동이자 자본주의의 생산력이 이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시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정이 모두 자본가 계급의 이윤으로 착취되고 있는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폭로하고 이를 철폐하려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협상안 도출 이후에는 협의의 이행을 위한 후속논의는 커녕 무더기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 수송 대책팀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들의 투쟁이 독자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4월 중순 철도 노조는 다시금 재 파업을 결의했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이러한 기만적 협상안은 단연 개량주의, 관료주의적 지도부의 투쟁 파기로 얻은 '성과'이다. 철도노조는 비타협적, 공세적 총파업으로 자본이 협상을 구걸해 오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부터 교섭 테이블 자체에 집착하였고, 정부와 자본가의 불법 파업 악 선동과 공권력 투입 위협에 굴복하여 총파업에 돌입한지 3일만에 산개파업, 현장 복귀 후 준법 투쟁으로 전술을 전환하였다. 부르주아 법에서 과연 '합법적' 파업이란 실재하는가? 노동법에 엄연히 단체 결성권과 행동권이 있다 한들, '민주 노조 사수' 조차도 하나의 투쟁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합법 영역에 갇혀서 노동자가 쟁취할 수 있는 권리란 과연 존재하는가? 자본가들은 언제든지 손해배상 가압류, 시설보호 요청, 명예 훼손, 징계를 휘두를 수 있다. 공권력 위협에 일사 분란하게 흠어질 바에야, 막말로 왜 파업을 선언했는가? 유일한 승리의 길은 가능한 철도 공사의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거점을 공략, 끊임 없이 거점 타격 투쟁을 이어나가고 공권력 침탈에 대비해 스스로 무장을 갖추며 비타협적, 공세적 총파업을 조직해내는 것뿐이다. 입으로만 연대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내부의 지부를 버리고 가는 배신적 협상 속에서 자본가들은 더욱 더 악한 고리를 치고 들어올 뿐이다.

KTX 지부가 철도 노조의 협상에 대해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은 매우 컸다. 그러나 KTX 지부 역시 철도 노조의 이러한 관료적 행태에 대해 폭로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선전, 선동하는 대신, '어설픈 협상하느니 우리 요구를 빼달라'라는 식의 체념으로 KTX 지부를 제외한 협상을 인정하였다. 승무 노동자들의 파업은 기술/차량/운전 지부와의 공동투쟁 없이는 쉽게 돌파구를 열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에 승복한 것이다. 철도 노조는 합의 이행과 징계철회를 걸고 5월 15일 서울역 농성에 들어갔다. 철도 노조는 이번에도 형식적인 자본의 이행 논의 테이블만 확보된다면, 종전처럼 일부 해고자들의 복직을 기꺼이 감내하며 KTX를 버리고 농성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농성 기간 동안 타 지부의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실질적인 파업을 조직하지 않는 한, 철도 지도부의 배신은 반복될 것이다.

부르주아 세력에 대한 청원식 운동의 한계.

KTX 투쟁 전술의 주요 축은 대체로 언론 플레이에 있다. 국회 헌정 기념관 점거, 강금실 오세훈 캠프 점거, 시민 선전전 중심의 홍보활동의 핵심 모두 언론을 통해 KTX 상황을 알리고 철도 공사에게 이미지 타격과 정치인에 의한 압박을 조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부르주아 정치 단체, 국가 단체, 법에 대한 일말의 환상도 버려야한다. 당사 일시 점거

등으로 이들이 철도 공사를 압박해주리라는 것은 완벽한 환상이다. 생산 양식은 단순히 직공장의 생산 분배 시스템을 넘어서서 모든 법과 제도, 이데올로기 전면을 지배한다. 부르주아 독재 체제 속에서 자본가 계급과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 행정 관료들은 자본주의 착취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 그래도 인권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남한 정부 입장에서 인권위는 참으로 폄하는 요식 기관이다. 인권위 진정을 통해 폭로 되었듯이 인권위는 철저히 현행 부르주아 법에 기초하여 자본가들에게 '살상' 착취하길 청원할 수 있을 뿐(그것도 가끔씩만) 어떠한 강제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권고 기구에 불과하다. 총칼로 노동자 및 근로대중을 짓밟은 장구한 역사를 가진 파쇼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에 대한 심판 따위를 떠들면서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는 동 헛소리를 하지만 사학 자본이 한 푼이라도 더 빼앗길까 사립학교법을 묵숨을 걸고 반대하고, 여성 후보자 공천이 4배나 늘었다고 자랑해대지만 최연희 성폭력 사건은 두둔하기 바쁘다. 한나라당과 합작한 열린 우리당의 기만은 또 어떠한가. 노사관계 로드맵, 한미 FTA, 평택 전쟁 기지 이전, 파견근로를 확산하고 비정규직을 대폭 양산하는 비정규직 법안! 이 모든 것들이 자본가 계급의 이



해가 아닌가. 그렇다면 민주 노동당을 믿어볼까? 97년 자본의 위기 속에서 구조조정, 파견 근로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조직한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국민 승리 21의 의회 정당 전환을 파견 근로법과 맞바꾼 자들이 바로 민주 노동당이다.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민주 노동당은 전국으로 파업장을 다니면서 노동자들의 자생적 투쟁에 대해 '본 노를 잠재우고 의회 장악으로 세련되게 문제를 해결하자'고 떠들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의회 장악 이후에 조금씩 세상을 바꾸면 된다고 차자,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점수하고 철저한 노동자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자본가들은 직장 폐쇄, 공권력 등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개혁을 파괴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의회주의의 한계이다. (세련된 척 하지 말고, 무식을 벗어던지고 역사를 공부하라! 아예데 정부가 파산한 지 불과 30년 밖에 되지 않았고, 자료도 많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법안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했다가 법안 처리가 한 달 미뤄지니 '앗싸!' 하고 총파업도 한 달 미룬 껌찍한 민주노총을 믿을까나? 맏소사!

현재 KTX 투쟁에 긴밀히 결합하고 있는 노동자의 힘(이하 노힘)이 이러한 전술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평택에서도, 파업장에서도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노힘은

KTX에서 역시 철도 자본가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보수 정당 심판과 열린 우리당 공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급적 단결"의 결론이 겨우 특정 정권의 퇴진인가? 그렇다면 권영길의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변하는가?(하긴 노힘은 민주노동당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선거 자체에 보이콧 전술을 내놓고 있지만, 이도저도 아니면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별다른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노힘은 철도 지도부의 배반을 관료주의에 대한 집요한 비판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도부의 동요'를 아래로부터의 조합원 조직으로 막아내자는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한 술 더 떠서 파업 철회가 지도부의 관료주의와 패배주의가 아니라 기관사들의 조속한 복귀와 자본의 극심한 탄압에 의한 불가항력인 양 취급하면서 관료들을 변호하고 있다.³⁾ 물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자본의 극심한 탄압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투쟁은 패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탄압을 겪기 위해 투쟁이 존재하고, 따라서 탄압이 거세질수록 투쟁 역시 거세져야 하지 않는가. 자본의 발을 묶어놓는 공세적 투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투쟁을 파리는 내부의 적들을 모두 용서하면서 '적들의 탄압 때문에...'라고 머리를 굴적거린다면, 전국에 제대로 싸울 곳 한 군데도 없다. 노힘은 성명서나 기관지에서는 항상 현장 활동가들의 활약과 현장 투쟁의 필요성을 외치며 전투성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작 총파업이 일그러진 후에는 어떠한 공세적 전술도 제안하지 못하고 국회와 각종 선거 캠프로 가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자는 청원식, 내부 역량 소모형 전술로 자본에 대해 무기력한 자기 정치의 한계를 폭로하고 있다. 자본가 계급의 축적을 중단시키고 자본주의를 철폐하려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투쟁, 부르주아 정당, 혹은 의회주의를 통해 부르주아의 이해에 복무하는 개량주의정당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들의 변혁적 조직을 창출하는 것만이 진정한 노동자 계급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KTX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도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과제 속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조합원 모두가 일상적인 교육과 토론을 통해 보다 강력한 노동자 계급의 정치로 무장해가자.

시민 선전과 언론 압박 전술의 한계.

언론 압박의 한계 역시 반드시 짚어야한다. KTX의 심한 거품에 '땅 위의 스튜어디스'에 대한 몰 성찰적인 관심과 그녀들의 비타협적 투쟁이 삼박자를 이루면서 언론들은 앞 다투어 KTX 투쟁을 보도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 노출이 이철 사장을 압박하여 '우리도 이 투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스트레스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내부의 판단이 조성되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선전 작업에 큰 비중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이철 사장은 언론 노출 때문에 타격을 받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도 하에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보다, 본래 모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거나,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말장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자. 실제

3) 노힘 기관지 <노동자의 힘> 제 98호 '기대하 우리가 교차한 철도 파업'

남한에서 철도 산업은 공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산업 내부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타 자본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차라는 운송 수단의 특성, 특히 독보적 기술력이 뒷받침된 KTX의 특성 때문에 아무리 이미지가 짝여도 철도 공사는 손님을 잃을 일이 없다. 구매자들은 철도 공사 자본가들이 아무리 나쁜놈들이어도 기차를 탈 수 밖에 없고 철도 공사는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철도 자본가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전술, 기차를 멈추게 하는 것뿐이다.

철도 공사의 업무 방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노조 내부에서는 법원이 철도 노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일반적이며, 이것이 투쟁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크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철도 공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 다시 말해 공사에 실질적 타격을 주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개탄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자본가들의 이러한 방해 공작에 맞서 당당히 싸워야 한다. 그러나 설령 업무 방해라 하더라도 왜 우리가 투쟁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끈질긴 선전을 통해 철도 자본가들의 공격을 격파해야 하지, 우리는 고객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착한' 노동자라는 것을 어필하는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 실제 430 노학연대 실천단 死活과 KTX 자부가 가진 간담회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당시 서울 지역본부 점거가 철도공사의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상징적 점거라는 점, 서울역 집회 역시 고객의 통행이나 기차 이용 등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서 발생하는 악선동과 고립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철도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시민공감/감동 전략은 '당신들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철도가 건강히 레일을 확보하는데 있어 조금의 피해도 주어서 안된다'라는 자본가들의 논리에 대한 굴종이다. 이러한 논리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투쟁 축소, 선전 작업에의 집중으로 이어져 공세적 실천이 가로막힐 때, 투쟁은 자본가들의 승리로 귀결될 뿐이다.

2. 전망

우리의 요구는 합의 이행이 아닌, 합의문 파기다!

"많은 조합원들이 합의문 자체에 대한 집중도 있지만...우리의 힘에 의한 반영... '온전한 주5일제 실현을 통한 근무체계 개편의 완성'이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철도 노조 지도부는 협약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냉정한 분석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관료주의를 노조 전체 역량의 부재로 그럴듯하게 왜곡하고 있다. 또한 KTX 요구가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KTX 지부의 요구를 제외하고 신규 인력 충원을 포기함으로써 반의 반쪽짜리 주5일제를 받아들인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정원 충원이 전제되어야 정규직화의 요구가 진전될 수 있는 현실적 제한성"이라는 변명으로 대체하면서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합의 전후에 무더기 징계 및 교섭 거부로 이미 본질을 드러낸 철도 자본을 상

대로 노사 협의체에 목숨을 걸면서 "5일제, 연금, 해고금지 복직에 관한 이후 노사협의와 함께 2006년 임금협상과 연계한 투쟁"으로 가겠다고 조합원들을 기만했다. 철도 노조 지도부 역시 성과를 압도하는 합의문의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 제 투쟁에서역시 '합의 이행'이라는 요구를 고집하고 있다.4)

이러한 철도·노조 지도부의 관료주의적 투쟁 파괴 속에서 KTX 여성 노동자들은 독자 파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현재 철도 노조의 요구와 전술은 KTX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명확히 말해서 "합의 이행"과 KTX 노동자 직접 고용 정규직화는 모순된다. 앞서 언급했듯 이미 KTX 문제는 협약서에서 사실상 제외된 요구였고, KTX 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본의 입장을 철도 노조에서 이미 이해해준 바 있다. 합의 이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KTX 문제는 무의미한 교섭의 구결과 공권력 투입에 대한 규탄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KTX 여성노동자들은 반드시 4월 1일 합의 파기를 관철시켜야 한다. 자본가들의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합의 이행이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철도 노동자들은 요구의 실질적 쟁취보다 합의 테이블 자체를 파내는 것을 목적으로 관료적인 성과를 가져가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협약 이후 철도 자본의 공격과 노사 협의체의 기만성을 폭로하면서 합의문 파기를 선언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퇴각부터 준비하는 요구안이 아니라, 합의 파기, KTX의 철도 공사 직접 고용 및 정규직화/비정규직 권리 개선이 아닌 비정규직 철폐/실질 임금의 감축, 근무 형태 개악, 파견근로 확장 없는 인력 충원을 통한 주 5일 근무 쟁취/노동 감시 체계 ERP 도입 전면 무효화 및 노동자 통제권 쟁취/해고자 전원 복직 및 징계 철회라는 철도 노동자들의 사활적 요구로 투쟁을 재정비하자.

열차를 멈추는 총파업을 조직하자.

5월 15일 제 투쟁 결의 이후, 철도 노조의 투쟁 계획은 여전히 대국민 선전 강화와 지역 본부별 서울역 농성장 릴레이 결합에 그치고 있다. 정상 작업을 모두 완수하고 퇴근 후에 농성장에 결합한다고 해서, 기차라고는 철도 공사밖에 없어서 철도 공사의 수익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승객들에게 억울함을 알린다고 해서 자본은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는다.

일부 복귀자와 투쟁을 외면하는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전 업무의 파업을 조직한다면, 공권력이 투입되어 일부 노동자들을 연행해 간다 해도 또 다른 노동자들이 저항하여 싸운다면, 농성장을 침탈당하고 점거에 강제 퇴거 명령이 들어온다 해도 지속적인 거점 공격을 계속해 다간다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기차를 굴려서, 어떻게든 노동자를 고용해서 임여가치를 착취해야만 하는 자본의 입장에서 모든 철도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구속시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파업의 의의가 아니던가. 노동자에게는 승리만이 합법이라고 했다. 멀리 볼 것 없이, 굴욕적 협상을



(출처 - 노동자의 힘 기관지 편집 위원회)

받아들이므로써 04년 궤도 파업이 어떻게 파괴되었고 그 후 노동자들의 중징계와 노동 강도 강화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자. 공권력 투입, 구속, 징계는 우리에게 넘어서 할 산이지, 투쟁을 가로막는 철벽이 되어선 안된다. KTX 지부 대표자들의 수배, KTX 여성 노동자들을 선두로 철도 노동자들은 지도부의 관료주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공세적 전술의 제시를 통해 반드시 단결된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서울역 농성이라는 수동적 전술에서 대체인력과 파업 불참자들의 열차 운행 업무 저지, 차량기지 및 매표소, 실질 업무 타격을 목표로 하는 철도 공사 점거 등의 전술을 배치해야 한다.

3. 철도 노동자들의 선도적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

궤도 파업은 1주일 못 넘긴다는 항간의 전설은 해를 거듭하며 더욱 더 진실로 입증되고 있다. 이는 철도 지도부의 관료주의와 이에 굴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철도 노동자들에게 뼈아픈 질책이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철도는 국가와 자본가 계급으로부터의 탄압이 그 어느 사업장보다 강력한데, 이는 그만큼 철도 파업이 불러오는 산업 자본 전체의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는 철도 노동자 스스로가 더욱 잘 알고 있다. 또한 KTX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투쟁의 선두에 서 있다. 각자 사업장에 몸대주기식 연대가 아니라, 단지 '아이고 안됐다' 한마디 해 줄 뿐인 시민을 향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각자의 현장에 기반한 강력한 투쟁을 토대로 창출되는 연대파업만이 전 자본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으로 지하철, 버스, 항공기, 화물 등 모든 운송 산업의 연대 파업을 조직해내자.

4) 인용: 2006.4.8. 철도 노조 제 558호 단행록보

KTX 투쟁을 여성주의 투쟁으로!

조합원 내부의 가부장성을 철저히 깨 부수자

지난 4월 24일, 철도 공사는 파업 복귀자들에게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피를 두르고 게이트에서 승객 맞이 업무를 강제했다. KTX 지부는 이를 저지하는 투쟁에 나섰다. 저지 과정에서 파업 대오와 복귀자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 이 가운데 조합원들이 복귀자들을 향해서 반여성적 언어가 쏟아져 나왔다. 흰색 치마 유니폼을 입은 복귀자들을 따라가면서 "속옷 다 비친다. 부끄럽지도 않냐", "우리보다 나이도 많은 것들이", "뚱뚱하고 못 생긴 배신자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파업 복귀자에 대한 분노는 십분 이해하나, 이러한 발언은 명백히 자본가 계급과 가부장제가 강제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남성 중심적 시선의 답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

'땅위의 스튜어디스'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항공기 여성 승무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자. 그녀들은 채용 당시의 외모 검열은 물론이고, 그녀들은 20대 후반부터 항공 자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몸무게와 피부 상태에 대해 검열을 받는다. 기내식을 마련하는 공간이 매우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객실로 나갈 때 매번 화장을 고쳐야 하고 카터를 미는데 엄청난 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힐을 신어야 하기 때문에 무릎통증과 하체 부종에 시달린다. 또한 마초적 남성들의 불쾌한 시선을 감내하면서도 신체 라인이 드러나는 유니폼을 착용해야만 한다. 이 같은 강제와 동시에 가부장적 사회는 항공기 승무 여성 노동자들에게 "나르는 장녀"라는 별명을 붙여놓고 그녀들에게 여성으로서 성적 자원을 팔고 있다고 낙인찍거나 심지어 그러한 역할을 은밀히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KTX 승무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열차 내부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하고 승객에게 음료를 판매하고 안내 방송을 하는데 도대체 162cm이상의 키가 왜 필요하며, S라인의 몸매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는 것이 승무 업무에 왜 필요한가? 철도 자본가들은 가부장적 시선에서 규정된 아름다운 몸매와 예쁜 얼굴을 가진 20대 젊은 여성을 승무원으로 채용하길 원한다. 그들은 열차 내부에서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위해서 여성의 성적 자원을 하나의 노동력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와 자본가 계급은 그녀들의 성적 자원을 사들이고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함으

로써 자신들의 이윤을 관철할 뿐이다. 아무리 복귀자 일지언정,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에 맞서 싸우는 KTX 여성 노동자들이 외모와 나이 따위로 상대방을 비난한다는 것은 명백히 가부장성의 내면화요, 철도 자본가들의 여성 억압에 대한 동의이다.

남성 노동자들의 가부장성에 단호히 맞서자

문제는 KTX 내부에만 있지 않다. KTX 투쟁에 결합하는 철도 남성 조합원들의 시선 역시 그녀들을 '꽃'으로 보긴 마찬가지이다. 철도 남성 노동자들이 조합원을 향해 "화장 하니 얼굴을 못 알아보겠다" "피곤해도 화장은 꼭 하네" 따위의 저질적 농담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다. 또한 430일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객석의 노동자들이 KTX 문선팀의 공연을 보며 '찰랑거리는 긴 머리'에 대해 유난히 말이 많거나 '볼거리가 많다' 따위의 발언이 난무하는 것은 그녀들을 한 사람의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로 보지 않는 시선이다. 이러한 시선 속에서 유독 KTX 문선팀을 향해서 크게 터져 나오는 "한 번 더! 한 번 더!"의 외침은 분명 불쾌한 마초적 시선이다.

남성 노동자들의 KTX 여성 노동자에 대한 가부장성은 그저 몇 가지 발언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 04년 궤도 파업 당시 지축 차량기지에 나무끼는 "아빠 힘내세요"라는 자보 속에서 소외된 철도 여성 노동자들은 철도 남성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또 한번 묻혀가고 있다. KTX 지부 투쟁을 철도 전체 파업에 뺐다 끼었다 하는 철도 노조의 태도는 여성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고, 여성 노동자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남성들의 그것에 비해 경시하는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다. 아니면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된 승무 서비스 노동이 운전, 차량 기술 노동보다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또한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여성 노동자라는 이유로 KTX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 대상, 지도 대상으로 보는 남성 노동자들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평등한 의사결정의 참여와 성폭력, 성희롱 언어 및 행위에 대한 자체적 규율을 요구해야 한다.

권위주의를 타파하자.

또한 1기에서 4기까지 이르는 승무원 기수에 따라 조합 내부에서는 '동지'가 아닌 '선배님'과 '후배' 사이의 상하관계가 존재한다. '동지' 대신 '선배님'과 '우리 애들'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다. 물론 여성 노동자 내부의 친분 관계가 돈독하고 일방적 무시와 권위의 관철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과민 반응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노조 내부의 일상적 차별 토론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1, 2기 조합원들로 구성된 집행부의 상황실 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조합원들은 이를 일률적으로 따르는 것이 보통인 지부의 운영 상황은 이러한

상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가부장제는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남성 중심의 연장자 지배 체제를 바탕으로 한다. 기수를 중심으로, 동기 내부에서도 연장자를 중심으로 자연스레 권위가 형성되는 문화는 권위주의이며 가부장적 문화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조직문화로 인해 상하 관계에 의한 의견 개진의 부재는 조합원들을 단순히 지침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었으므로 스스로의 투쟁이라는 의식을 조합원에게 심어주기 힘들며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는 관료주의로 흐를 위험을 가지고 있다. KTX 동지들 내부에서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어에서부터 토론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지속적인 연대 활동 속에서 위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조합원을 만나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조합원 조별 토론 및 자유 토론 시간을 배치하고 정기적 교육 및 여성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철도 노조 전체에 언어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고 언어 성폭력 발생 시 철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 또한 KTX 조합원 내부에 기수, 연령과 무관한 존대 및 상하관계 없는 호칭의 생활화를 시도해보자. 투쟁 중인 여성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및 공동 집회를 열어 여성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 또한 여성주의를 한층 고조시킬 것이다.

KTX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땅위의 스튜어디스'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분노가 아니라 여성 노동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KTX 여성 노동자들에게 '땅위의 스튜어디스'라는 철도 자본가들의 시선이 자부심이 아니라 여성에게 편중된 보살핌 노동과 여성의 외모를 자원으로 하는 가부장적 억압에 대한 분노가 되어야 한다.

철도 자본가들은 임신 여성, 출산 이후 소위말해 '몸매가 망가진' 여성,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그때 그때 해고하고 '더 젊고 더 예쁜 노동력'을 구매하기 위해서 승무직을 비정규직으로 두고자 할 것이다. KTX 지부의 투쟁처럼 여성의 성적 자원을 노동력으로 판매하길 강요당하는 각종 서비스직 여성 노동자들의 정규직 투쟁은 가부장적으로 강제되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뛰어넘어 평생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여성주의 투쟁이다. 여성주의적 무장 없이, 승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의 진정한 승리란 없다.



생리휴가와 월경 공결제 그리고 교육투쟁

연세대학교에서는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하여 월경 공결제를 도입하기 위한 운동이 한창이다. 교육부등 요구안에 월경 공결제가 들어있고, 그동안 여성의 몸에 대한 담론이 은폐되어 왔던 교실이란 공간에서 월경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학 내에서의 월경 공결제에 대한 담론이 처음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작년 경희대 총여학생회에서 추진한 '생리 결석제 학칙도입'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경희대 생리결석제 운동은 직·공장에서의 '생리 휴가' 제도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다. '생리휴가' 제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성보호라는 측면만으로 월경을 봄으로써 여성의 몸을 보호해야 할¹⁾ 대상으로 규정하고 월경의 경험에 대한 보장을 '가임' 여성의 권리²⁾로 규정짓는 한계를 지냈다. 또한 직·공장에서의 생리휴가 제도를 여과 없이 도입함으로써 '한 달에 하루 발급'에 머무르는 등³⁾ 여성의 시각에서 월경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월경 공결제 운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0. 무엇을 원하는가?

어떠한 사람의 일상적 경험자체가 사회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에 맞추기 힘든 경우 그것은 차별과 억압으로 다가 온다. 그리고 차별적 시각은 차이를 더 부각 시키며 억압을 가중 시킨다. 일상적 불편함을 재단하고 획일적 기준으로 강제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오히려 조건에 맞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수정해 나가는 것, 그래서 차별을 없애고 차이를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일 것이다. 월경 공결제로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으로 학점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생리휴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이다. 우리는 나아가 월경으로 인한 공결시 빠진 수업 내용에 대한 보충 자료가 미리 마련되어 학습 과정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생리휴가로 인해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급휴가를 부활시켜야 한다. 또한 공동체내에서 남성 중심적인 시각·자본가의 시각이 아닌 경험 주체의 시각으로 여성의 월경을 바라보는 몸에 대한 담론들을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자. 우리를 둘러싼 환경자체가 우리의 일상을 불편하게 한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편함으로 남아있게 하는 모든 조건을 분쇄해 나아가야 한다. 제도적 장치로써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적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월경을 회화화하는 성폭력적 담론, 남성노동을 중심으로 노동을 해석함으로써 생리통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를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로 비하하는 담론을 제거해 나아가야 한다.

여성고용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월경공결제

행동하는 일상, 힘이 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18대 총여학생회

1. 생리휴가의 무급화

직·공장에서의 생리휴가는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생리중인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부터 명시되어있었다. 대부분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의 존재조차도 몰랐으며, 알았다 하더라도 직·공장 내의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다.⁴⁾ 그러나 생리통으로 인해 노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97년에 근로기준법이 새로 쓰여 질 때도 유지되었던 '유급 생리휴가'는 2005년 개정되어⁵⁾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무급'화 되었다.⁶⁾ 하지만 법적으로 유급 생리휴가가 보장되는 사업장에서도 유급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개악은 전면적 무급화와 그다지 다르지 않는 결정이다.

주5일제가 제도적으로 실시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이윤을 유지할 명목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각종 휴가제도의 폐지와 유급수당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결국 주5일근무제의 시행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없이 생리휴가는 무급화 되었다.

생리휴가의 유급수당은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저임금과 과다노동에 시달리는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의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생리통으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상의 불이익은 온전히 여성노동자 개인의 책임이 되었다. 이미 임금 지급에 있어서 성차별⁷⁾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심각한 빈곤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노동계가 생리휴가의 무급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직·공장 내의 여성 노동자의 월경의 경험을 여성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생산에 차질을 가하는 손실로써 인식하는 지금의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개선해 나아가는 것을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잉여노동의 착취를 위해 노동자들이 과다한 노동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주5일 근무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여성의 노동시간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임금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낳는 생리휴가의 무급화를 받아들인 것, '전체노동자를 위해 여성노동자가 희생하라'는 것은 여전히도 노동운동진영이 노동의 주체를 '남성노동자'로 상정하고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불완전하게나마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던 '모성보호'를 자본의 이윤 증식을 위해 포기하는 것을 방관한다는 의미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악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법안들이 개악되는 역사는 생리휴가의 무급화뿐만이 아니다. 여성노동관련 노동법의 개악에 저항하겠다는 노조 관료들의 약속은 결국 '남성으로 대표되는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목 하에 언제라도 배반될 수 있는 것이었다.

민주노조의 역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억압을 끌어내기 위한 선도적 투쟁들을 만들어나갔다.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민주노조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생리 휴가의 유급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수당 지급을 요구안으로 걸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여성노동자⁸⁾.

생리 휴가의 무급화에 반대하여 가열 찬 투쟁들을 벌여 나가는 여성노동자들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 그러나 전체 노동운동의 흐름 속에 그러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주변화 되어있다는 느낌 또한 진실이다. 노동계 내의 가부장성을 견어내고,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이중·삼중의 억압들을 견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져 '여성' 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싸워야 한다. 또한 관료적 노동조합의 가부장적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활동들을 벌여 나가야 한다.

2. 직·공장과 학교에서의 월경

생리휴가가 무급화 된 것, 초중고에서 법적으로나마 인정 되고 있는 월경 공결제(생리결석제)가 여전히도 대학 내에서는 도입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1) 누군가의 경험이 보호받아야 할 경험으로 해석 된다는 것은 경험의 당사자가 아닌 보호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해석이다. 일상적 경험이 '보호'되는 이상 경험에 대한 주체적 담론을 형성하는 운동을 만들어 낼 수 없다.

2) 여성은 '임신을 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3) 생리휴가가 한 달에 하루로 정해진 것은 제도적 효과를 최소화 하려는 자본가적 시각의 반영이다. 또한 경험주체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여성 노동자의 73.1%가 생리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5) 제71회[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외 개정후

제71회[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로 '유급'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6) 주5일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유급휴가이다.

7) 동일 노동시간에 대한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0%에 불과하다.

8) 페티온텔 전·현직 여성 직원 1298명은 "근로기준법 개정 전 2년 동안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는 요구를 내세워 투쟁을 전개하였고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직·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의 기준, 학교에서 학습 환경의 기준은 '신체 건장한 남성'에 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경우는 '장애'가 된다. 월경시 생리통으로 인해 '신체 건장한'의 기준을 넘지 못한 경험은 장애로 인식된다. 모성 신화를 통해 '가임' 여성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월경'은 성스러운 것,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은폐된 '월경'의 경험은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된 직·공장과 학교에서 '특별한' '장애'로 인식된다. 여성에게는 일상적인 경험으로 생활과정의 일부분인 월경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의 이해에 따라 남성을 기준으로 측정된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하는 손실로 인식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상황은 어떠한가? 생리통은 여학생만의 특별한 '장애'로 인식되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되었다. 수업을 수강하는 기준은 월경을 경험하지 않는 상황을 기준으로 짜여져 있으며, 월경의 경험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여전히 교수에 의한 언어성폭력이 만연한 교실 내에서 월경 공결제를 개인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월경의 경험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생리휴가는 무급화 되었고, 대학 내의 월경 공결제의 요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 단계이다. 직·공장과 학교에서 여성이 처해있는 위치에 대한 이해 없이 생리휴가나 월경 공결제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폭언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높은 강도의 노동을 기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잉여노동을 착취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노동 강도가 일 년 365일 동일 노동력을 유지하도록 책정된 것은 생리통을 겪는 여성들에게는 불합리한 노동 강도가 된다. 여성의 경험을 은폐시키고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노동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에 있어서 자본가는 그 만큼의 잉여 노동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리휴가가 무급화 됨에 따라 동일임금에 대해 여성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노동의 강도는 높아진 것이나 다름없다.⁹⁾ 학교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예비 노동자로서 학습노동을 학생에게 강제하는 것이 학교의 첫 번째 임무이다. 학생들의 학습량을 늘리려는 학사제도¹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여성의 월경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배제한 채 높은 학습량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통해 학교는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생리 휴가가 '모성보호'의 명목으로 도입된 것은 출산을 노동력의 재생산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뜻한다. 자본을 위해 일하는 노동력의 안정적 재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자본이 부담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윤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의 끊임없는 압력에 의해 그나마 명목상으로 유지되던 월경과 출산의 비용마저 노동자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되는 것이다.

3.무엇을 할 것인가?

교육투쟁 요구안에 생리결석계 학칙도입이 들어가고, 총여학생회의 신문발행,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화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찬반을 떠나 여학생의 월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학내여론의 수면위로 떠오른 것 자체로써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을 듣기 힘들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월경 공결제의 시행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시범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학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시범운동 그 자체적으로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시범운행을 통해 월경 공결제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실제적 경험으로써 결석계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러한 경험의 축적은 생리결석계의 학칙도입을 위해 행동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범운행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교 측에게 그에 대응하는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들이 월경 공결제를 학교 측에서 받아들여도 '강제'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아니다. 지난해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선거공약에 '생리결석

계 학칙도입'이 들어있었으며, 올해 초 비교적 빠른 시일부터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월경공결제가 이야기되어져 왔고, 이미 학내 여론화가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본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유급 생리 휴가에 의해 노동일이 줄어드는 것을 자본가들이 원치 않는 것처럼 월경 공결제를 통해 학생에게 강제되는 학습일과 학습량이 줄어드는 것을 학교가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 되고 있는 결석계를 인정하고 안하는 것이 교수재량에 맡겨짐으로써 학생에 의한 자유로운 사용이 아닌 교수의 판단에 따라 학생들의 필요가 재단되는 상황을 학교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교육투쟁이 시들해져 학생통제권의 획득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월경 공결제'의 요구조차도 학교 측이 항상 하는 '~ 위원회 건립 약속', '시행하도록 노력해보겠다'의 립 서비스에 좌절될 수 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연속성을 끊어내는 월경 공결제 운동은 유효하다. 그러나 사학 자본이 학사 행정의 모든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 통제권의 쟁취 없이 교수의 인식 변화를 통해 자체 시범 운동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가부장적 교수 및 사학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청원 운동에 그칠 것이다. 월경 공결제의 시행 취지를 교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교수성폭력에 대한 반성폭력 운동이 장시간에 지난한 싸움을 요하는 문제인 것처럼 수업에서 월경 공결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들의 인식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운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단절적 강제가 동반된 담론의 형성 없이는 인식변화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수업 방식과 일정 등의 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입이 강제되어 교수님들에게 성인지적 수업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¹¹⁾

학교를 압박하여 월경 공결제를 시행하고 나아가 성차별적인 학사행정 전반에 제제를 가할 수 있으려면, 여성주의적인 학내 여론들을 만들어나감과 동시에 학생의 통제권¹²⁾ 획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투쟁을 실질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정기적인 집회를 만들고, 각급 학생회 차원에서 반성폭력 교양을 진행함과 동시에 월경 공결제에 대한 담론 형성을 위한 세미나들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학생회 일상사업에 여성주의적 고민이 녹아들도록 '자치규약'에 대한 내부 교양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교육투쟁 요구안에 대한 교양이 형식적이지 않게 시행되어야 한다. 학생 사회 전반의 일상에서 교육투쟁 요구안이 이야기되고, 학생통제권을 획득하기위한 행동들이 만들어져야한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와 단대학생회 중 어디에서도 선거 때 공약이었던 '생리결석계 학칙 도입'을 위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있다. '총여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가 이루어진지 오래이다. 교육투쟁의 요구안은 각 단위 내에서 끊임없는 선전과 내부토론을 통해 주체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행동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현실화 될 수 없다. 월경 공결제 운동의 과정에 각급 학생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월경 공결제의 실질적 시행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학사과정과 공동체 생활 내부에서의 성차별적 담론을 제거해나가는 운동의 확장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월경 공결제의 시행을 학교에게 강제하고 교수반성폭력 교양이 실효 있게 강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학생통제권 획득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들은 전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싸워야할 대상은 비단 학교본부라는 외부의 적 뿐 만이 아니다. 남성중심적인 노동계가 자기 내부의 가부장제를 버리지 못한 결과 자본의 생리휴가 무급화 요구에 굴종한 것처럼, 각급 학생회에서 남성중심적인 공동체문화를 깨어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여학생 교육권 쟁취 운동에 대한 방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학생 사회 공동체문화의 남성 중심성을 없애 나가야한다. 각급 학생회에서 월경 공결제에 대한 활동들이 부재한 것은 성 차별적 문화에 기생해오던 기존 활동의 연속성을 단절하기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남성중심적인 공동체 문화를 유지한 상태로 교육투쟁을 진행해 오면서 그 공동체문화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난한 자기고민의 과정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9) 요구하는 노동량은 동일하나 재생산 노동에 대한 임금 지불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

10) 재수강제도 제한, 글쓰기 숙제 학점반영, 졸업 요건 강화, 34000단위 강제이수 등을

11) 이 과정에서 학생사회 내부의 여성주의 담론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12) 통제권은 '~위원회 학생 참여'와는 다르다. 학교가 만들어 놓은 '위원회'는 학교와 학생간의 권력구조의 틀 안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개입은 형식적인 것에서 제한 되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통제권은 교육투쟁이 원할 때 이루어져 학사 과정의 전반에서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의한 개입이 유지·강화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투쟁을 통해 학교를 압박함으로써 학교와 학생간의 권력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 하에 이루어지는 개입이 학생 통제권이다.

또한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담론의 형성 없이 개인의 자기성찰에만 기대 수도 없다. '월경 공결제' 운동을 각급 학생회 내에서 주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내부의 거부장성을 걷어내는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자.

학생과의 최소한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자본의 이해대로 학사제도를 개악해

나가면서 학생들에게는 무반응을 통해 힘을 빼고 있는 학교본부의 독심 앞에 교육투쟁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교육투쟁을 통해 '싸워서 얻지' 못하면 뒷걸음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학생사회 전반에 여성주의적 고민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여성 교육권 쟁취'는 결가지로 호지부지되기 쉽다. 월경 공결제를 시행하기 위해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성차별적인 제도와 담론들을 없애나가기 위해 각급 학생회의 지속적 참여와 내부 고민 하에 보다 공세적으로 싸워나가자.

이주 노동자 특집

이주 노동자 운동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살인적인 단속추방에 의해 궁지에 몰린 이주 노동자 코스쿤 살렘과 누르푸아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MTU(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및 인도네시아 공동체(이하 ICC)를 중심으로 누르푸아드 사망 사건 공동 대책위가 꾸려지고 추모식을 비롯해 고용허가제 및 단속추방 철폐를 요구하는 몇 차례의 집회가 있었다. 그 후 이주 노동자 운동을 말살하려는 총자본 국가의 감시와 강제 추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MTU 경기 중부 지부에서 열린 안산 독자 집회 후 집회 대오 중 한 사람이었던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압둘 사쿠르가 '테러용의자'로 지목받고 경기 경찰청에 의해 연행되었으나 경찰은 테러 혐의는 고사하고 끊임없이 MTU 집회 참가 여부와 집회의 내용, ICC 구성 및 활동에 대해 캐묻고 그를 화성 보호소로 넘겨버렸다. 결국 정부는 누르푸아드 사망 이후 ICC가 점차 투쟁을 조직하자 집중적인 감시에 들어간 것이며, 그들의 의도대로 ICC 일부 노동자들은 "집회가면 단속 된다"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이용해 단지 그/녀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얼마든지 '테러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고 테러 혐의는 1급 기밀이므로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빌미로 정부는 얼마든지 수십 만 명의 압둘 사쿠르를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것인가! 프랑스의 알제리 이주 노동자 봉기, 미국 이민법에 맞선 200만 명의 이주 노동자 투쟁 등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주 노동과 이주 노동자 운동을 보라. 이미 제국주의로 전향한 일부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가 계급은 타국의 노동력을 싼 값에 수입, 착취함으로써 얻는 막대한 이익을 얻으며 이주 노동자를 자국민의 노동자와 분리하고 그/녀들을 효과적으로 통제, 착취하기 위한 부르주아 법과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제국주의 정책과 이주 노동자

자본주의는 사적소유가 소수 자본가 계급에게 집중됨으로서 노동력이 하나의 상품이 되는 임금 노동의 발생을 기본 전제로 한다.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임금 노동자의 노동은 필요노동과 잉여 노동으로 구성되는데, 자본가 계급의 이윤이 바로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 노동 속에서 온다. 따라서 자본가 계급은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필요노동)을 절감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 개발의 압박을 받으며 타 자본가와 경쟁하게 된다. 누가 더 기술 우위를 점하여 잉여를 늘리고 다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자본가 계급간의 경쟁에서 소자본가의 잇따른 도산과 독점적 기업으로의 자본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자본에 기생하는 금융자본이 산업 전반의 실질적 통제력을 가지는 금융 과두제가 나타나게 된다. 자국에서 생산의 집적과 집중이 고도에 이르고 더 이상 자국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을 때, 금융 자본을 등에 업은 독점체는 해외 시장으로의 자본 수출과 이주 노동자 유입, 국민 국가를 등에 업고 전쟁 및 외교적 압박을 통해 타국 산업을 잠식해 들어간다. 이러한 자본주의 최고 단계가 바로 제국주의이다.

남한도 이미 제국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SK 두바이 지사, 삼성과 같

은 거대 자본의 중국 및 동남아시아 공장 이전 등 거대 기업들이 해외로 자본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규모로 자본을 수출할 수 없는 영세 자본가들은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여 절대적 잉여가치를 늘임으로써 도산을 막기 위해 이주 노동자를 대거 유입하게 된다. 이주 노동력 수입은 수출국과 유입국 사이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현저

한 차이를 그 조건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이주 노동자 대부분은 영세하고 위험한 도금, 사출, 방직, 중공업 중 산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공정에 고용되어 전태일 열사의 작업현장을 방불케 하는 노동 조건을 강제당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 정책으로 병행되고 있는 산업 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¹⁾는 이주 노동자들을 묶어두는 방식이 비단 임금에만 있지 않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 연수생 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등장한 고용허가제는 단지 1년간 더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뿐, 산업별 이동의 자유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장 이동의 자유박탈, 취업 가능 산업 제한, 가족 동반 금지 및 상당부분 이주 노동자의 임금에서 각출되는 보험제도, 짧은 체류기간내의 강력한 착취와 전기 충격봉에 그물총까지 등장하는 단속 추방을 골자로 하는 노예정책이다! 일상적인 단속의 두려움과 산업 재해의 위협 속에서 미등록 상태로 노동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가 어언 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이주 노동



1) 산업 연수생 제도는 '3+1' 고용허가제는 '3+2' 제도로서, 각각 3년, 4년 이후에는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어 단속 추방된다. 전자는 2년간 교육받는다는 것을 명목으로 위험하고 단순한 작업에서 온전히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취보리만큼 지급받으며, 그 후 1년간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3년간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으며 1년간 추가적으로 더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보통 전만 원에서 전 5백 만 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한국에 들어올 때 필요한 경비조차 벌어들일 수 없게 만든다. 이주 노동자 유입에 있어 아무리 정부의 공식 루트를 타고 들어온다 해도, 각종 서류 비용 및 공청 관리자, 소개비 따위의 엄청난 뒷돈이 드는데, 이는 정부 자체가 바로 브로커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나라에서 어느 정도 통제력과 학력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빚지고 개인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빚을 다 갚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돈을 모을만하면 이전 단속 추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산업 연수생 제도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달에 약 60만원 밖에 되지 않으며, 기술을 배우고 있어 비교적 임금이 높은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제하고 빚을 제하면 나뉠 수 있는 돈은 극히 적다. 게다가 항상 안전의 위협 속에 있는 작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험이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의료비는 한국인의 5.6배에 달한다.

자 투쟁에 있어 우리의 궁극적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고용허가제 일원화?

평등 노조 이주 지부로 출발한 이주 노동자 운동은 2003년 명동 성당 투쟁을 거쳐 현재 수도권 이주 노동조합으로 성장해왔다. 현재 이주노동자 운동은 종교 단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센터 운동과 MTU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센터 중심의 활동은 무료진료, 한국어 교육, 문화제, 쉼터 제공을 중심으로 하며 이주 노동자들의 생활 복지 증진에 핵심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매우 소중한 '봉사' 활동이긴 하나 이주 노동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들도 인간이다. 모든 인간에게 인권이 있다'라는 방식의 문제제기에 갇힌 한국인들의 시혜적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에 노동조합은 이주 노동자 정책 자체를 바꾸기 위해 이주 노동자 스스로가 맞서 싸우기 위한 노동자의 조합으로서 운동을 전개해 가야한다. 이주 인권연대를 비롯한 센터 운동은 현행 고용허가제의 일원화, 미등록 이주 노동자 고용허가제 적용을 주장한다. 이러한 제안이 단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 없는 이유만으로 고용허가제 자체가 가진 노예성, 이로 인한 이주 노동자들의 일상적 고통을 묵과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며 판로적인 태도이다. 고용허가제 재적용을 통해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전면 합법화하는 주장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는 굴레 속으로 들어가 미등록 상태를 벗어나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며 다시 4년 뒤의 강제 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자본가들의 주문에 지나지 않는다. 05년 민주 노동당이 가져온 고용허가제 재탕 법안 역시 다르지 않다. 사업장 이동 금지와 단속추방 정책은 유지하되, 단지 3+1을 3+2로 연장하며,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향후 5년간 특별 노동허가를 발급하겠다는 조삼모사와 립 서비스로 포장된 이들 법안을 두고 한 이주 노동자는 '차라리 불법 체류자로 남겠다'라는 분노를 터트렸다. 자본가 계급은 이러한 고용허가제를 두고도 '외국인 노동자 임금 증가' 때문에 고용허가제 대신 이주 노동자 교육 기간을 제도입해야 한다고 떠돌고 있다²⁾

-정부의 기만적 '중국 동포 방문 취업 비자'

법무부는 지난 4월 중국 동포 및 러시아 한인민족의 경우 자신 신고 후 출국하여 1년 후에 재입국하면 5년간 자유로운 취업 및 3년간 체류 연장을 허용하는 방문 취업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1년 동안

타국 노동자 대거 강제 추방을 전제로!

한국계 미국인인 한 명의 스포츠 영웅이 한국에 선풍적인 '혼혈인 신드롬'을 퍼트리고 난 후 남한 정부는 중국 동포, 러시아 한인 민족 구제를 들먹이며 결국 민족주의를 이용한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 최근 노무현의 외국인 노동자 구제 정책은 겨우 지금껏 한국에서 10년 넘게 노동한 이주 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및 산업 연수생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자진 출국 신고 시 한국 체류 가능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90일로 연장, 출입국 관리소 내부의 인권 팀 마련, 외국인의 날 제정 따위를 불법 체류자 구제 법안이라고 내놓고 있다. 총자본은 단속 추방 중단은 고사하고 아직도 이주 노조를 불법으로 낙인찍으면서 최소한의 이주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조차 거론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 정책 변화를 역사적 진보라고 떠돌고 있는가!

노동 허가제를 도입하자!

임금 노동자는 자본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밖에 없으며, 자본가 계급간의 경쟁, 노동자 내부의 경쟁 안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기준으로 보다 높은 값에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의 임금은 자신의 노동력재생산 비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임금 노동을 전제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노동력을 팔고 있는, 노예도 노동자도 아닌 회한한 위치에 있다.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나라로 돌아가서 굶주리거나 이곳에서 단속에 저항해 스스로 산화해가거나, 둘 중하나의 삶을 선택지로 가지고 있다.

영연히 이주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노동자이고, 이주 노동력 유입은 자본주의 심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흐름일지니, 자본가 계급의 착취에 맞서 싸우며 이주 노동자들의 완전한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만국의 변혁을 준비하는 전망 있는 운동이다. 이주 노동자 운동은 "노동 3권을 가지고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권리"인 노동허가제의 쟁취 없이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 고용허가제 철폐, 단속 추방 박살, 노동허가제 도입을 통한 미등록 이주 노동자 전면 합법화, 노동 3권 쟁취! 현재 이주 노동자 운동의 중심은 이러한 요구로 수렴되어야 한다.

방향 중 구공탄 사업 계획

구공탄 신문 발행 공청회

6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연세대 공A011

신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와 질의응답, 향후 노동자 학생 연대 결합 계획 공유를 위한 공청회를 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 2회 신문 발행

신문 제 2호에서는 "일상적, 변혁적 노학연대란 무엇인가?" / 이주 노동자 특집 제 2탄 이주 노조 투쟁의 과제, 제 3탄 이주 여성 노동자 / 지속적인 KTX 투쟁 소식과 입장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문 발행을 통해 여러분과 만납니다. 신문은 발행과 배포를 넘어 지속적인 토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 학생 연대

-구체적 일정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KTX 여성 노동자 투쟁 결합

서울역 정기 집회 및 KTX 지부 단식 투쟁이 진행 중이다. 구공탄의 KTX 투쟁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을 조직하기 위해, 일상적 노학연대를 통한 지속적 입장 제기와 실천적 검증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우들과 함께 KTX 여성 노동자 투쟁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자 한다. 또한 학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경 공결제 학칙 도입, 교수 성폭력 근절 운동을 여성 노동자의 운동과 연계하고 서로의 요구에 연대하여 싸울 수 있는 여성주의적 노학연대를 만들어가자. 집회 및 공권력 침탈 시의 일회적 노학연대, 전국적 정세를 논하며 전국 투쟁 사업장 순회에 매진하는 유망적 노학연대를 거부하고 일상적, 변혁적 노학연대를 창출하자.

2. 이주 노동자 투쟁 결합

이번 신문에서는 이주 노동자 운동의 요구 재정립을 특집 1탄으로 실었다. 다음 신문을 통해 구공탄의 지난 7개월간의 이주 노조 연대 속에서 05년 투쟁의 평가와 06년 투쟁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다. 생활 이익을 방어하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현재 미조직 상태에 있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임금 체불 및 산업재해, 성폭력 등 이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받는 고통들을 이주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해결하는 현장 경제 투쟁이 긴급한 과제로 요청되고 있다. 현재 새롭게 조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도 이주 노동자를 비롯, 법안의 변화와 함께 새로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을 만나고 투쟁의 과제를 도출하여 함께 싸워야 한다.

구공탄은 작년 11월 이주 여성 노동자 학생 연대팀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주 여성 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절감했고, 이러한 한계들을 정확히 평가하고 다시금 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현재 이주 노조에서 접촉하고 있는 일부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각국별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특성들을 긴밀히 파악하여 결합 계획을 재정비하자. 이는 공청회와 다음 호 신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것이다.

주 1회 학내 공개 세미나

마르크스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마르크스주의 및 계급적 여성주의에 대한 관점 정립

커리:

- 1주차 - 엥겔스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 2주차 - 마르크스 <임금 노동과 자본> <임금, 가격, 이윤>
- 3주차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 4주차 - 크리스하먼 <민중의 세계사>
- 5주차 - 엥겔스 <국가, 사유재산 및 가족의 기원>
- 6주차 - 린지 저먼 <성, 계급, 사회주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